

“전북 결집, 대선 승리 확신”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 5289명, 이재명 지지 선언
 김윤덕 의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염원 전국 확산”
 양경숙 의원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호소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 대전환플랫폼과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는 23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양경숙 의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연태영 대전환플랫폼 상임위원장, 우범기 국민참여플랫폼 국민특보단 공동단장, 정진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 상임위원장, 송희숙 부단장 등이 참석해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 5289명 명의로 이재명 지지 선언했다.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아주고 검찰개혁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재명 지지 선언에 나서게 됐다”며 “전북도민은 이재명후보의 소독본에, 균형성장 지방분권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상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이재명의魄심과 추진력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위해 호남인의 뜻을 모아 온힘을 다할 것을

전명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기에 대한 열원이 전북을 하나로 결집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을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있는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빙의 선거구도에서 전북이 하나로 결집하면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전주 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지역업자의 어려움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후보이고,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더 나은 변화 위한 정치교체”

민주 이재명 후보 전북총괄특보단 출정... 도민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총괄특보단 단장 안호영, 방용승이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총괄특보단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회견문을 낭독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행보의 시작을 전격 결의했다

특보단은 안호영 의원과 방용승 전북도당 선대위원장을 총괄단장으로, 최형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과 김정호 변호사 등을 상임단장으로 하는 5만 4824인 규모다

전북총괄특보단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기회를 내어주기 위한 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민생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북도가 새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총괄특보단이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호남권에 속한 부차적인 지역이 아닌,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린뉴딜 중심의 성장전략, 자동차·조선 등 주력사업 부활과 제4기 민생소통 선발대”를 호소했다

보의 전북 발전 7대공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보단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나쁜 변화가 아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3월 9일 제4기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도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대전환플랫폼과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전북본부’는 23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농어촌 위기 해결해 줄 책임자”

도내 농어업·농어민 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도 농어업·농어민 단체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북도연합회 최규영 회장, 한국생활개선회 전북도연합회 심명순 회장, 한국·H전북본부 강순우 회장, 현장농업포럼 전창재, 생태근 공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의 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전북도와 우리 농어민들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고 확실한 정책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와 농업수산물분배에 대해 국가 예산 전체 대비 5%로 공약한 부분을 높게 삼으며, 농어민의 땅과 정성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산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부분을 대환영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동안 공약 이행률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국·H전북본부 강순우 회장은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농촌의 고령화를 완화해주고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청

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국생활개선회 전북도연합회 심명순 회장은 “여성농어민의 권익신장과 여성 기본소득 보장, 여성 창업농의 비율을 향상시켜주고, 청년 농업인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현실성 높은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실천 해 주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전북도 여성농어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 전북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은 “전북 농도의 자존심을 건설택전인 만큼, 전북 농민단체 및 선배 농어민의 지지를 감사하게 여기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지지에 달라”며 “전북도민들과 14개 시·군 농어민, 농어촌에 이재명 후보의 중심이 다다르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동학혁명 정신, 지금도 우리 가슴에 타올라”

윤석열 후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찾아 보국영령에 참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10시 정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구민사를 찾아 보국영령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 장소에 도착한 윤 후보는 영령들의 위패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약 1분간 묵념했다

참배를 끝낸 후 그는 방명록에 “권력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타오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했다

윤석열 후보는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와 악법에 항거한 혁명”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10시 정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구민사를 찾아 보국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영령들의 혁명 정신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하태경, 전주혜, 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이재명 후보 대선승리 올인”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 대선승리 올인”을 다짐했다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플랫폼 국민특보단 더불어민주당 공동단장(이하 국민특보단 공동단장)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대전환플랫폼·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대한민국 풀뿌리 민생소통 선발대 전북본부 선포식(이하 민생소통 선발대에) 참석해 이재명 지지를 재차 선언했다

이날 민생소통 선발대 선포식에는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윤덕 의



원, 양경숙 의원, 연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각 시·군 의장들이 참석했다

“대선 승리 위해 함께 뛰자”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선거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부의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전주시장 후보들이 함께하는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부의장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의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가 집을 설치해 한다”며 “이후 후보를 위해 시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공동선거위를 구성, 대선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후보들이 만나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선거운동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이 지난 21일 제안했던 전주 출신 서울 경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참여 전화캠페인도 그 대상 중의 하나라고 말한 뒤 “다른 후보들이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할 경우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운동을 타 시·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까지 확산시켜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도의원,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우수상'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완경복지지원장·전주1)이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시상식’에서 여성경제활동촉진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이러한 이명연 의원의 공로와 평소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던 점 등을 높게 평가해 이번 우수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음·고창 지역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음·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둔 가운데, 지역 내 각계 단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음 2000 청년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22일 정음·고창 청년농업인 및 정음시 귀농·귀촌 동지회, 23일 지역 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가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확인했듯,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 사회, 노동 등 모든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일터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과 같이 초저점 양상이 펼쳐지는 시점에 지역의 청년, 농민, 노동단체들이 지지선언에 나서 주니 큰 힘이 된다”며 “정음과 고창에서 시작된 이러한 지지선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정음·고창이 80% 이상 투표율과 90% 이상의 득표율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정음과 고창에서부터 일어난 바람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제 미용사협회 회원 등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 김제시 미용사협회 회원 188명(회장 오인자)과 ‘시민캠프 대남은미래위원회’ 김제화원 1,015명(대표 고명역)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제시 미용사협회 오인자 회장은 “사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을 책임지고 보상에 줄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며 “김제시 미용사협회 회원 188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민캠프 김제시위원회 고명역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국민의 열렬한 지지가 들불처럼 번져 전국에 방방곡곡에 넘쳐나고 있다”며 “시민캠프 김제화원 1,015명은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 제4기 민주정부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명한다”고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